

# 10대 청소년 자살예방 범정부 추진 대책

202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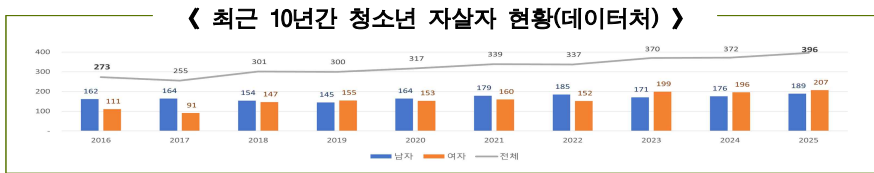
## 순서

I. 10대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	1
II. 10대 청소년 자살 관련 주요 문제 .....	3
III. 비전 및 추진 방향 .....	5
IV. 세부 추진 과제 .....	6
1.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	6
2. [감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	9
3. [개입] 고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 지원 확대 .....	11
4. [회복]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	16
5. [기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 .....	17
V. 향후 추진 계획 .....	20
※ 추진 과제별 소관부처 .....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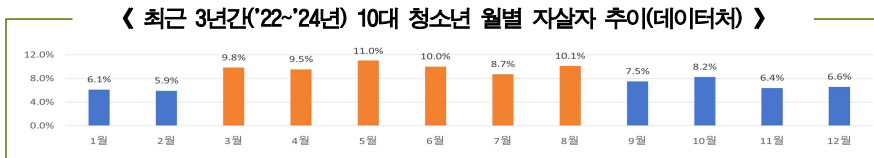
# I. 10대 청소년 자살 관련 현황

## □ 자살 사망자: 최근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 (현황) 10대 자살사망자는 '25년 396명(잠정)으로, '24년(372명) 대비 24명 증가(6.5% ↑), '16년(273명) 대비 123명 증가(45.1% ↑)
- (성별) 여성의 비중은 '16년에 40.7%(남성 59.3%)였으나 '25년에는 52.3%(남성 47.7%)로, 여성 자살자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



- (월별) 10대 자살자 수는 상반기(52.5%)가 하반기(47.5%) 보다 높으며, 월별로는 5월(11.0%), 8월(10.1%), 6월(10.0%), 3월(9.8%) 순



## □ 자살 수단: '추락' 비중이 전체 연령 대비 3배 이상 높음

- (현황) 10대의 경우 자살사망자 중 '추락'(237명, 63.7%) 사망자 비중이 전체 연령대(17.6%)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24년, 데이터처)
- ※ 자살 수단별 사망자(전체): 목매 40.6%, 중독 24.2%, 추락 17.6% 순  
자살 수단별 사망자(10대): 추락 63.7%, 목매 21.5%, 중독 4.6% 순
- (원인 추정) 관련 연구\* 결과, 일상적 스트레스가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청소년기의 충동성이 자살 수단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

《\* 청소년 자살 원인 탐색 및 예방 대책 연구(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변화로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 성인보다 충동적이고 미숙하게 대처하는 경향"

## □ 자살 동기: 정신적·관계적 요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현황) '24년 청소년 자살사망자의 동기 분석(경찰조사서 기반) 결과\*, '정신적 문제'와 '관계 문제'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확인

《 \* 청소년 자살 사망자별 동기 분석('24년, 데이터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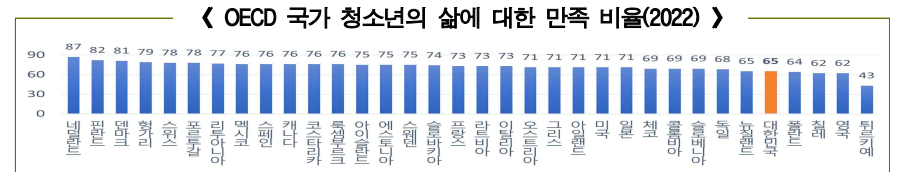
정신과적/정신적 문제	관계 문제 (가정/남녀)	기타	원인 미상
55.6%	13.2%	22.6%	8.6%

- (고려 요인) 단, 청소년 자살은 특정한 단일의 원인보다, 복합적 요인들의 상호작용 결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
- ※ "예컨대 개인의 우울은 도래 갈등과 결합될 때 증폭... 디지털 환경에서의 비교 경험은 무망감을 강화.."(2026,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또한, 청소년이 경험하는 위기요인들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누적 효과가 크고, 회복은 어려워지는 경향
- ※ "학업적, 심리-정서적, 행동적 통합위기의 경우, 개별 작동할 때보다 누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조기 발견과 신속 개입, 다차원적 지원 필요.."(2026, 한국교육개발원)

## □ 위기 청소년: 낮은 삶의 만족도, 정신과 진료 청소년 증가

- (삶의 만족도) 국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OECD 최하위권\*

\* 한국은 '만족' 비율 65%, '불만족' 비율 22%로 34개국 중 30위(PISA, 2022)



- (정신과 진료) '25년 정신건강 문제로 병원을 방문한 청소년은 43.1만명<sup>추정</sup>으로 '21년 27.4만명 대비 57.3% 급증(국민건강보험)
-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은 우울·불안·양극성장애·조현병 등 중증도 이상 정신과 진료를 받는 청소년도 13만명을 초과\*
- \* 중증도 이상 정신과 진료 청소년(만명) : ('21) 8.6 → ('25) 13.2<sup>추정</sup>(국민건강보험)

## II. 10대 청소년 자살 관련 주요 문제

### ① 경쟁·성과 중심 사회에서 청소년 마음건강에 대한 관심은 부족

- 양극화, 성과 중심 문화 확산 등 실패에 대한 부담을 심화시키는 사회풍토 속 청소년 마음건강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간과
-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은 확대 중이나, 면역력과 마음근육 강화에 초점을 둔 사전 예방 체계는 미흡
  - 「자살예방법」 개정으로 학교에서의 자살예방교육이 의무화(24.7월~) 되었으나, 형식적·일회성 운영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
- 청소년 자살은 개인을 넘어 가정 및 학교 공동체 차원의 문제\*이나, 보호자 등 주변인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인식은 부족

《 청소년 자살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분석(202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위험요인	보호요인
개인적 요인	우울, 불안 수면 문제 등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낙관성, 스트레스 대처능력
사회·환경적 요인	가족 역할 혼란, 의사소통 문제, 가족의 정서적 문제, 사회적 고립, 학교 폭력 등	친밀한 가족/친구 관계, 사회적 지지 등

### ② 다양한 자살 유발요인에 노출된 청소년의 성장 환경

- 오늘날 청소년은 진로 고민, 가정 및 학교에서의 고립과 갈등, 각종 중독 등 정서적 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위기로인에 노출
- 또한, SNS와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해 확산되는 자살관련 정보(자살 방법, 장소 등)와 연예인 등의 자극적인 자살보도\*는 모방·확산 효과를 일으키는 촉매로 작용
  - \* "미디어를 통한 자살 보도 태도(동정, 흥밋거리), 보도량(시간, 빈도), 보도 방법(자극적 묘사, 부정확한 정보) 등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2023, 이동훈 등)
  - 현재 '자살예방 보도준칙 4.0'이 적용되고 있으나, 실효성은 미흡\*
  - \* 5월 15일자 청소년 자살 보도 관련,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모니터링 결과 32개 언론사 보도준칙 미준수(동기 추정 및 구체적 자살방법 언급 등)
- 그간의 교육·상담·치료 여건 개선 노력에서 나아가, 청소년 성장환경 전반의 위기 요인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 변화 필요

### ③ 위기 청소년 사전 감지 및 선별의 어려움

- 청소년 자살은 복합적인 원인에 기인한 경우가 많고, 자살자의 대다수는 사전에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지 않는 등 높은 비표출성\*
  - \* 자살자의 80%는 정상군, 20%는 고위기자로 분류(2026, 한림대병원 흥현주)
- 학교 기반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문제를 폭넓게 진단하기 위한 도구로, 자살 위기징후 파악에는 한계
  - ※ '25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살위험군은 전체 검사인원(초1-4, 중1, 고1, 162.6만명)의 1.0%인 약 1.6만명 수준
- 청소년 역시 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자살자 구조 신호 감지 비율이 낮고, 상담망(전화, 채팅 등)을 통한 위기포착도 적기 대응에 한계
  - \* "자살사망자의 92%가 언어적 신호, 행동적 신호, 상황적 신호 등 경고 신호를 보내지만 유가족 중 21%만 이를 감지"(2018, 중앙심리부검센터)

### ④ 고위험군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인프라 미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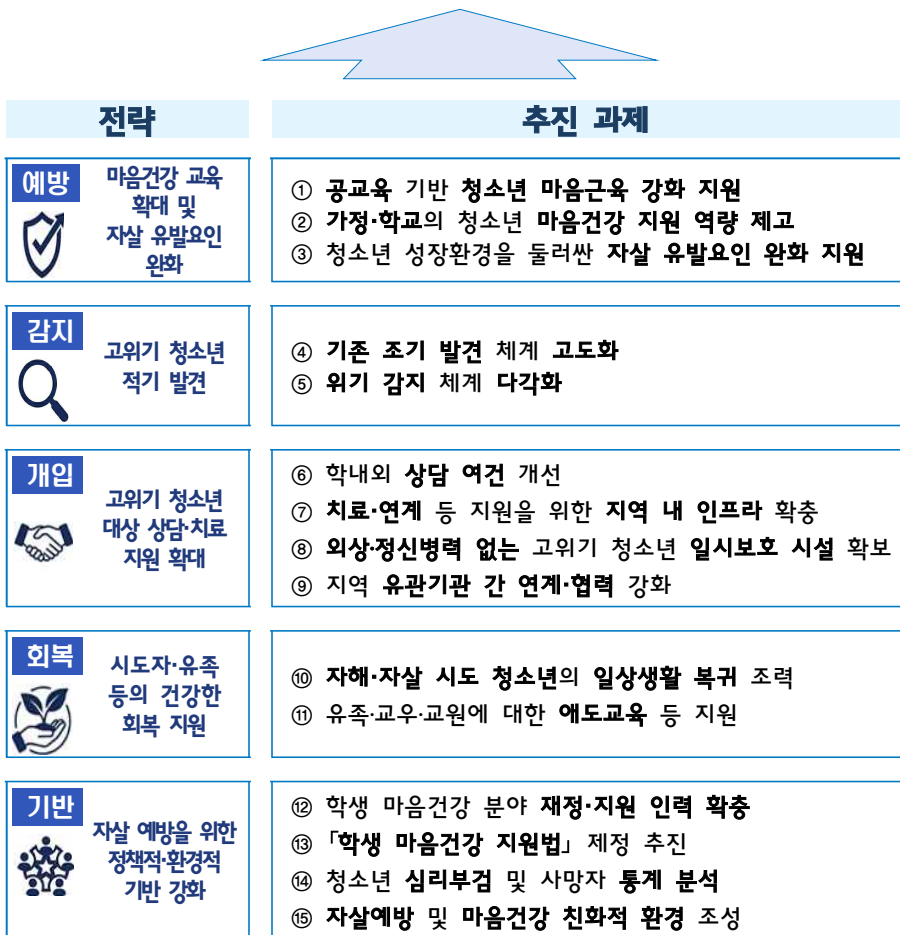
- 학교 내 상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중이나, 인적·물적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여 위기 상황 적기 대응에 한계
  - \* (25.4월 기준) 위클래스 구축율: 77.3% / 학교 내 전문상담인력 배치율: 61.0%
-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등 지역 내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사례관리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미진
- 아울러,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교육·치료 복합지원기관, 의원 및 전용 병동·병상, 일시보호 시설 등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

### ⑤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취약

-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다양한 주체 간 연계·협력이 중요하나 주체별 책임과 권한, 지원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법적 기반은 부재
  - 전 연령 '자살위험자' 구조에 중점을 둔 「자살예방법」은 자살위험 전 단계의 정신건강 위기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 근거로는 한계
- 또한, 가시적 성과위주의 국가 예산배분 체계 하 예방적·비가시적 성격이 강한 '마음건강' 분야는 안정적 재원 확보 곤란

### III. 비전 및 추진 방향

<b>비전</b>	청소년 마음건강 증진 및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구현
<b>목표</b>	자살률 감소(인구 10만명당) '24 8.0명 → '30년 6.5명 → '35년 4.2명 이하



### IV. 세부 추진 과제

#### 1 예방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

##### ① 공교육 기반 청소년 마음근육 강화 지원

❖ 학교 내 자살예방교육, 사회정서교육, 체육·예술교육 등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청소년의 자존감 고취 및 정서적 회복 지원

현장의 목소리 대전 00초등학교 A교사 ('26.3.25., 동아일보 기고문)

☞ "외동 자녀가 많고, 온라인 중심 여가 생활로 대면 소통 기회가 줄어... 새 학급에서 새로운 이들과 공동체 생활을 해 나가는 역량은 점점 더 중요한 교육의 관심사..."  
 ☞ "한국형 사회정서교육은 그동안의 인지적 성취에 비인지적 역량이라는 날개를 달아주는 전인교육의 이정표...관계와 감정, 갈등을 다루는 지혜를 교육이라는 설계로 완성해야..."

- (자살예방교육) 형식적·일회성으로 운영되던 교육에서, **일상 속 위기대응 역량**의 수시 함양을 지원하는 교육으로 전환 복지부·교육부
- ※ (교육 운영) 사회정서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인성교육 등과 연계 (교육 내용) 문제 상황 발생 시 자살을 해결 방식으로 선택하기보다,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고 스스로를 소중히 돌보는 방법 등을 교육
- 필요시, 자살예방교육 강사 및 사회 저명인사 등 외부인력 초빙 대면교육으로 학생들의 교육 몰입감 향상 지원 추진
- (사회정서교육)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등 활용, **모든 학생** 대상 마음건강 증진 교육인 '사회정서교육' 운영 확대(6→17차시) 교육부
- \* 주요 내용 :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 기르기, ▲감정 수용과 민감하게 반응하기, ▲발전적 관계 형성하기, ▲부정적 정서(스트레스, 불안 등) 다루기 등
- 어릴 때부터 가정과 학교에서 자기인식, 소통·협력, 책임, 마음돌봄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를 수 있도록 발달단계별 교육과정 제공
- ※ 사회정서교육 교육과정 개발('25.) → 초·중·고별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26.下)
- ※ 선도교사 양성(연간 1,500명 내외) 등 교사 교육역량 강화 지원 병행
- (체육·예술교육) 청소년의 건강한 신체와 정서 함양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체험 중심의 체육·예술 과목 운영** 교육부
- ※ (체육) 체육수업 감축 금지(초·중) 및 매 학기 편성(고) 강조, 초등학교 1, 2학년 체육 교과 신규 적용('28.3~)에 따른 현장 안착 지원 등
- ※ (예술) 교육과정 내 예술 기반 교과 융합프로젝트 및 학생 주도 주제 중심 예술 교육 활동 등 협력형 예술 활동 참여 지원

## ② 가정·학교의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역량 제고

❖ 자녀 성장단계를 고려한 부모교육, 교원 및 예비교원 대상 교육·연수 확대 운영으로 가정·학교 내 인적 안전망 강화

○ (부모교육) 부모·아동수당·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수급 보호자 대상 성장단계별 양육정보 제공 및 부모교육과정 안내\* 강화 복지부·성평등부·교육부

\* 양육급여 신청 및 지급 단계에서 '자녀와의 소통법', '자녀 지지법' 등 교육 콘텐츠 게시 링크 및 안내문 등 제공(26.하~)

- 가족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 사회복지시설 등 가용시설과 연계한 부모-자녀 관계회복 프로그램 및 대면교육 활성화 복지부·성평등부·행안부

현장의 목소리 ◇◇ 공익법인 관계자 (26.3월, 청소년 정책 라운드 테이블)

“지역 복지관 강당에서 학교 방문이 어려운 학부모 대상 부모교육을 실시하면, 자녀의 마음도 알고 갈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부터 해보겠습니다.”

○ (교원연수 등) 교원 자격 취득연수 과정에 '학생 마음건강' 관련 내용을 지속 반영\*하여, 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도 역량 강화 교육부

\* 교(원)감, 정교사(1급), 전문상담교사(1급) 등 자격연수 과정에 관련 내용 필수 반영(26.7~)

- 또한, 예비교원 양성기관 교육과정(2급 정교사) 내 '학생 마음건강' 관련 과목 개설 및 운영 의무 법제화\* 추진 교육부

\*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고민정의원 대표 발의(26.3.6)

## ③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 완화 지원

❖ ▲진로 및 학업 고민, ▲관계 문제, ▲유해매체 등 청소년 일상 속 자살유발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 개선 등 추진

○ (진로 고민·학업 스트레스) 진학·진급 전 학교생활 적응, 진로 탐색, 학업 상담 등 학교 내 '진로연계교육' 확대 교육부

※ 복합적인 문제로 학습·복지·건강·상담 등 통합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생맞춤 통합지원 체계'에 따라 지원

-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밖 청소년의 심리·진로 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등을 통해 자립역량 제고 성평등부

-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취약계층 대상 스포츠·문화 예술 공연 등 청소년의 정서적 웰빙 및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지원 확대 문체부·교육청

○ (고립·관계 문제) '마음챙김 동아리', '또래 기반 학교 문화 캠페인' 등 공동체적 연결과 소속감에 기반한 마음건강 증진 활동 강화 교육부

<\* 학교 문화 개선 캠페인 운영(안, 예시)>

- ▶ [목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단절된 교우관계 회복 및 또래 공동체 복구
- ▶ [내용] 학교 내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이끌어 갈 또래리더 양성
- ▶ [핵심메시지] "친구를 돕는 것은 일생을 함께 할 동반자를 만드는 소중한 경험"

- '27년부터 '학교폭력 예방주간'\* 지정·운영(5월 넷째 주)으로 학교 내 긍정적 관계 형성 및 회복 문화 조성 지원 교육부

\* 모든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사회정서역량 함양을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 마음 건강 교육, 학생주도 캠페인 활동 등 집중 교육 기간 운영(「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시행(27.1.1~))

- 수학여행·체육활동(청소년수련원 등)·소풍·운동회 등 공동체 역량 함양에 도움을 주는 교육활동 지원 교육부·성평등부

※ 수학여행, 체육활동 등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교사 책임 부담 경감 추진

- 농산어촌 유학 교육청,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힐링캠프 성평등부 등을 통해 정서적 회복과 교우관계 형성 지원

○ (디지털·온라인 등 매체) ▲SNS·디지털 과의존, ▲자해·자살유발 정보 확산, ▲자살보도·표사 등 매체 기반 자살유발요인 완화

- (과의존)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와 디지털 디톡스를 위한 치유 캠프 성평등부, 예방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과기정통부·교육부 등을 통한 SNS·디지털 과의존 예방 지원

※ 중고생의 85% 이상 SNS 사용하며(성평등부 2024), 청소년의 13.5%는 스마트폰 장기간 사용·몰입 후 우울감 혹은 무기력 호소(과기부 2025)

- (자해·자살유발정보) AI 활용 24시간 모니터링 복지부·과기정통부, 플랫폼사 대상 시정 요청 방미동위, 약물 정보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관리 강화 방미동위·성평등부·식약처 등 자해·자살유발 및 청소년유해정보 확산 방지 지원

\* (기존) 전담인력, 국민모니터링단 → (26.11) AI 24시간 모니터링 솔루션 개발/적용

- (자살보도) 모방심리 방지를 위해 청소년 자살사안 보도 금지\*, 위반 시 벌칙 조항 등 법적 근거 마련 검토 복지부

\* 핀란드에서도 개인적 죽음과 관련된 보도에서 '자살'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자살과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도 보도하지 않는 원칙을 시행 중

- (자살표사) '영상 콘텐츠 자살 장면 가이드라인' 보급 지원 문체부·복지부, 방송심의규정 엄격 적용 방미동위 등 자살미화를 통한 악영향 배제

\* 자살 미화나 자살 정당화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시 제재조치 강화

## 2 감지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

### ④ 기존 조기 발견 체계 고도화

- ❖ 선별검사 개선 및 생명지킴이 양성 확대로 학내 위기학생 선별 체계를 고도화하고, 학교밖 고위기청소년 선별을 위한 원스톱서비스 확대
- (선별검사 내실화) 정기검사 개선(現 초1·4, 중1, 고1 대상 실시), 수시 검사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위기학생 조기발견 체계 강화<sup>교육부</sup>
  - \* 수시검사 확대를 위한 '마음 EASY검사' 활성화 선도사업을 실시('26.2~)하고, 검사 결과 모바일 안내 및 기능 개선(개인별→단체검사 등록) 등 편의성 제고 지원
- (게이트키퍼 양성) 선별검사와 병행하여, 자살위기를 인지하고 조력할 수 있는 '생명지킴이' 교원 및 청소년 양성 확대
  - \*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살예방 및 위기대응 교육을 통해 양성되며, 자살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생명지킴이의 역할, 자살위험자 조력 기관 등을 학습
- (교원) 교육현장의 위기학생 감지 역량 제고를 위해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강화<sup>교육부</sup>
  - \* 시도교육청 평가지표 내 교원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운영 실적(예) 연1회 이상 반영
- (또래) 민·관 협력 기반 '또래지킴이' 양성 등\*을 통해 청소년 주도의 감지·예방을 활성화<sup>교육부·성평등부</sup>하고, 청소년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내용에 심호흡법 등 불안증세 대처교육<sup>(가칭)마음CPR 교육</sup>을 포함<sup>복지부</sup>
  - \* (예시) 또래상담 활동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례 공유 및 리더십 향상 등
  - \*\* 30초 심호흡법, 충동 억제법 등 위기 상황에서 동료의 자살충동을 가라앉힐 수 있도록 20분 내외의 실습 위주 교육으로 진행

#### 현장의 목소리 ▽▽생명 관계자 ('26.3월, 민간기업 의견수렴)

- ☞ "대학생 멘토-학생 게이트키퍼(라이키, Life Key for Friends)가 소규모 그룹별로 자살위기 친구를 발견하여 또래상담을 진행하고, 필요시 교사에 연계하고 있어요. 학생들 주도로 위기 감지, 지원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벤치마킹 문의가 오고 있어요."
- (학교밖청소년 선별) 학업중단학생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를 강화하고,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서비스\*를 통한 고위기자 선별<sup>성평등부</sup>
  - \* ('25) 12개 센터(광역 2, 기초 10) → ('26) 14개 센터(광역 4, 기초 10)

### ⑤ 위기 감지 체계 다각화

- ❖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하고,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시스템 구축 등 위기 청소년 선별 역량 강화 지원
-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자살예방법」 상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대상\*에 교육청을 추가, 교육(행정)기관의 관리체계 강화<sup>복지부·교육부·경찰청·소방청</sup>
  - \* (현행) 경찰·소방 →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공유

#### 현장의 목소리 ○○교육청 담당자 ('26.3월, 자살학생 급증지역 현장 의견청취)

- ☞ "「자살예방법」을 개정, 자살시도자 정보를 제공받는 기관에 교육기관을 포함하여 자살시도로 퇴원한 위기 학생이 학교에 복귀할 때 병원의 소견과 개입전략을 고려하여 학생의 적응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 (AI 활용) AI 기반 발굴시스템을 구축('26.말)하여 고위기 청소년 발굴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한 지원 강화<sup>성평등부·과기정통부</sup>

#### 《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시스템 구축시 기대효과 》

구분	기존	개선
업무 처리	상담사가 키워드(140여개) 직접 검색 → 신중 은어, 이미지 등 탐색 한계	이미지, 영상, 신중 은어 등 발굴 범위 확대 → 상담사는 상담에 집중하여 업무 효율화
모니터링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불가	AI의 상시 모니터링 가능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수작업으로 대량의 데이터 처리의 한계	대량 데이터 분석 자동화, 실시간 통계 분석 가능

- (선별방식 개선) 정신건강상태검사의 건강검진 연계 등 추가 연구를 통한 개선방안 검토 추진<sup>교육부·복지부</sup>

####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교 B 교사 ('26.4월, 전문상담교사 간담회)

- ☞ "학교에 비해 의학적 전문성을 갖춘 병원에서 위기 학생 선별 기능을 지원하고, 학교는 예방 활동 및 위기 학생에 대한 관리 역할에 보다 매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 검토 필요"

### 3 **개입** 고위기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 지원 확대

#### ⑥ 학내외 상담 여건 개선

❖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 ▲상담 역량 제고, ▲전화·인터넷 상담 강화 등 학내외를 아우르는 청소년 상담 여건 개선 지원

- (위클래스 개선) 위클래스 설치 확대, 위클래스 방문부담 완화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 등 학내 상담여건 개선 지원 교육청
  - \* (예시) 복합 공간화(상담실+라운지), 출입동선 노출 최소화(타 공간과의 공용문 설계) 등
- 내담학생 호출방식 개편, 상담실 자유이용시간 설정, 상담 독려 캠페인 등 학교 상담에 대한 인식 제고 활동 병행

**현장의 목소리** □ □ **교육청 C 장학사 (‘26.3월, 위센터/위클래스 워크숍)**

☞ “담임교사가 “상담실 가봐”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낙인효과 등 거부감이 생깁니다. 사전에 고위기자를 감지한 후, “오늘은 몇 번 학생이 수업때땡이 행운번호에 당첨되었어요. 상담실에서 자유시간을 가지세요.”라고 상담 뽐기 이벤트로 전환한 후 상담의 효과성을 제고한 일선 학교의 사례가 있습니다.”

- (위센터 기능 확대) ▲학교 컨설팅, ▲고위기학생 상담 및 전문기관 연계, ▲학생·학부모 접근성 제고\* 등 기능 확대 지원 교육청
  - \* 학생·학부모가 위클래스를 경유하지 않고도 위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치료 연계, 강좌 등의 서비스 이용가능하도록 지원
- (상담인력 확충) 모든 학교에 전문상담교사 등 상담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추후 일정규모 이상 학교에 추가 배치\* 검토 교육부·행안부
  - \* (예시) A중 48학급 1,500명, 전문상담교사 1명 → 500명당 1명 전문상담교사 배치
- 위센터 전문상담인력 확충 등을 통해 방학 등 기간에 구애되지 않는 상담의 연속성 제고 지원 교육청
-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고위기 청소년을 집중상담하는 인력 확충 및 처우개선 강화로 전문성 제고 및 안정적 사례관리 지원 검토 성평등부

- (상담역량 제고) 전문상담인력 대상 ‘학교상담리더’ 연수 과정을 운영(연간 200명 내외 양성), 학교 상담의 질 제고 지원 교육부
- 위센터 내 고경력 전문상담교사를 우선 배치, 관내 상담 지원 및 고위기 학생 관리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 개선 검토 교육청
- 전문상담교사 양성기관의 ‘상담실습 과목’ 운영 내실화\*를 지원, 예비 상담인력의 역량강화 노력 병행 교육부·복지부·성평등부
- \* (예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취득에 필수과목인 ‘상담실습’ 과목 운영시,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실습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지원
- (전화·인터넷상담 강화) 1388 전화상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검토, 위기신호 조기 포착 및 상담서비스 질 제고 성평등부

#### <현 행>

- 지역회선 모두 통화 중이면, 상담 불가
- 전화상담 전담인력 없음
- 녹취, 콜백, 상담이력 관리 안 됨

⇒

#### <개 선>

- 대기 없이 인근 지역으로 연결
- 전화상담 전담인력 배치
- 녹취, 콜백, 상담이력 등 데이터 기반 관리

#### ⑦ 치료·연계 등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확충

❖ 위기청소년 대상 적기 상담·치료 지원을 위해 ▲긴급지원팀, ▲마음바우처, ▲복합지원기관, ▲전용 병동·병상 등 지원 기반 확충

- (긴급지원) 정신건강 전문가가 학교를 방문하여 위기학생 대상 상담·치료를 지원하는 ‘긴급지원팀’ 확충(‘25. 56팀 → ‘26. 65팀) 교육청
- 보호자 협조가 어려운 위기학생 대상 긴급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 상담·의료 인프라의 적극적인 협조 독려 교육부·복지부
- \* 학교장의 상담 및 치료권고를 정당한 사유없이 미이행한 경우 동의없이 긴급지원(학내 상담치료, 전문기관 연계 상담·치료)이 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가이드라인 안내(‘26.2)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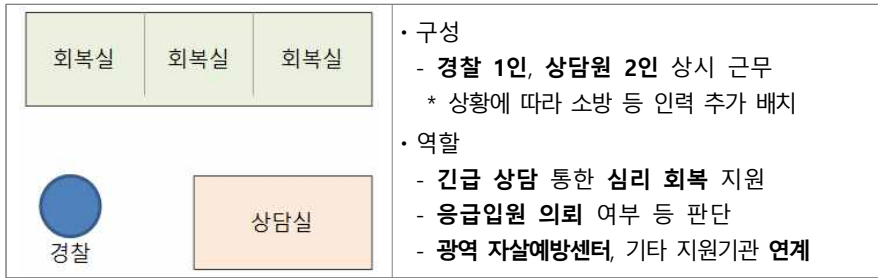
- (마음바우처) '학생 마음바우처'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위기학생 대상 정신과 병·의원 진료·치료비는 물론 상담비까지 지원 교육청  
\* (25) 치료비(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상해 치료 포함) → (26) 치료비+상담비
- (복합지원기관) 병원형 위센터, 위스쿨 등 교육-치료 복합지원 기관 확충으로 위기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기반 강화 교육청
  - 정신건강 문제로 장기입원한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원격 수업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및 제도개선 추진 교육부·교육청
- (전용 병동·병상) 고위기 청소년 적기 지원을 위한 전문의 확보 및 청소년 전용 병동·병상 등 설치·확대 추진 복지부

## ⑧ 외상·정신병력 없는 고위기 청소년 일시보호 시설 확보

❖ 외상·정신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응급실에서 보호할 수 없는 고위기 청소년 보호를 위한 일시보호시설 설치 추진

- (일시보호 시설 신설) 구조된 자살시도자가 귀가 전 단기간(최대 1일) 체류 및 보호받을 수 있는 일시보호 시설 도입 검토 복지부·경찰청·소방청

< 가칭 자살시도자 일시보호 시설 모형(안) >



- (임시보호 공간 확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등에 '마음피난처' 조성을 지원, 위기 청소년 임시 보호·관찰 공간 확보 성평등부·교육부
  - 가족 지원체계가 약하여 자살위험이 높은 청소년을 '청소년 임시쉼터' 등을 활용하여 야간에 일시 보호하는 방안 검토 성평등부·복지부

## ⑨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유관기관 등 각종 활동 중인 청소년 자살예방 지원 조직 간 소통 및 사례관리 연계 등 강화

- (지역 안전망) '(가칭)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 고위기자 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마련 행안부·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지자체·교육청
  - 기존의 지역단위 협력체계를 고도화, 지자체 자살예방관이 총괄하고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기구로 지역 안전망 협의회\* 구축
  - \* [구성(예시)] 지방자치단체(자살예방관), 교육청(학생자살예방 업무 소관부서),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 자살예방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찰, 소방 등

### 《 지역 안전망 협의회 내 기관별 참여 예시 》

- (상시 참여) 지자체, 교육(지원)청, 위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자살예방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 (비정기 참여) 학교(위클래스), 경찰·소방, 복지관, 가족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

- 지역 청소년 자살예방대책은 동 협의회에서 총괄 지휘, 사안발생시 해당 학교 대응\*도 일괄하여 조직적 운영

\* (예시) 심리 안정화 작업 시, 자살예방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협업하에 일시 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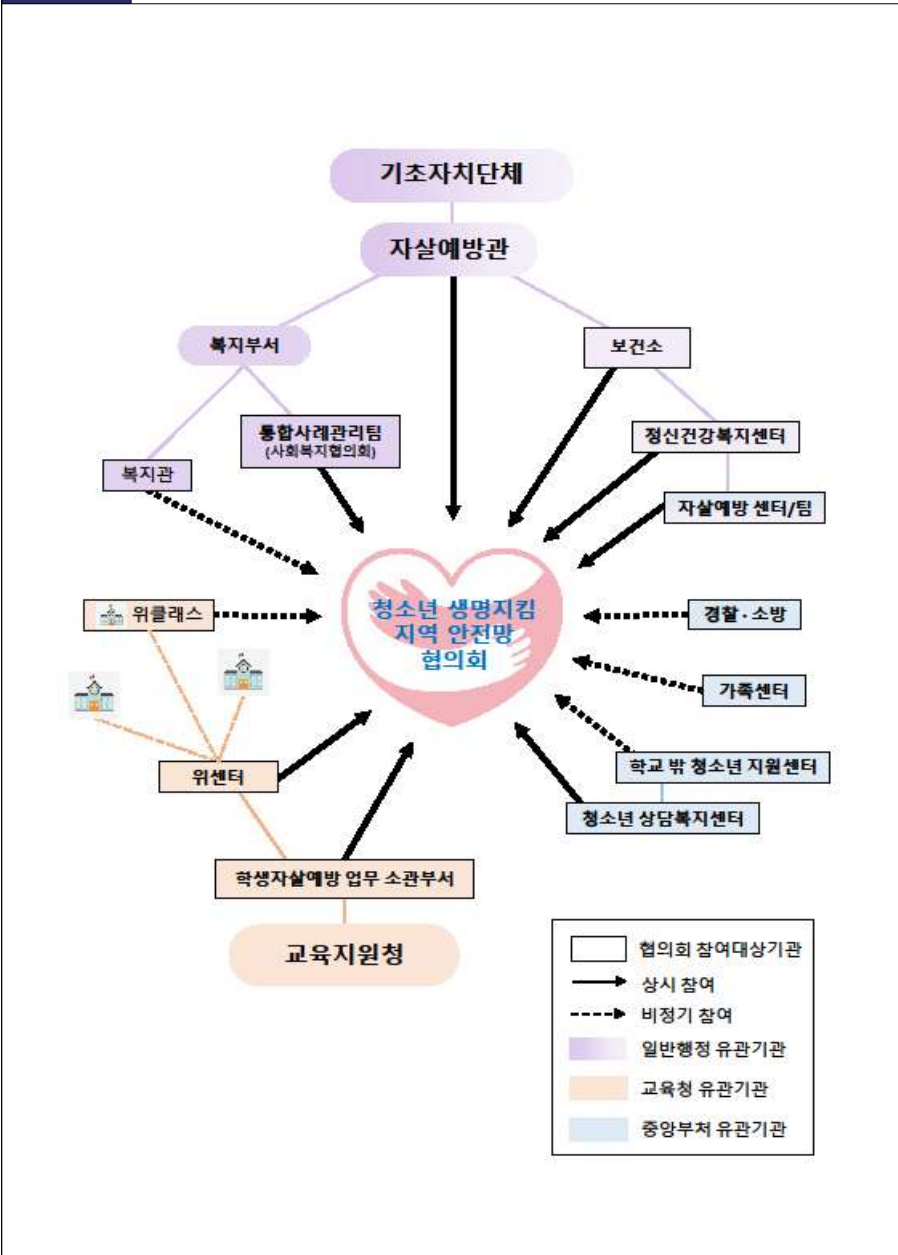
- (소년원 관리 연계) 보호관찰소,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 정신과 치료 지원\*\* 등 유관기관 간 업무연계 강화 법무부·복지부·성평등부 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비행청소년 전담인력 확충 추진 성평등부

\*\* (현재) 5대 국립정신병원 → (개선) 주거지 인근 정신과 이용(보호소년법 개정사항)

- 소년원생을 위한 생명지킴이교육 강사 복지부 및 국악, 미술, 연극, 음악 등 자기표현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참고**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 (가칭)



**4** 회복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

⑩ **자해·자살 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 복귀 노력**

❖ 자해·자살 시도 후 학업에 복귀한 학생의 일상을 맞춤형 지원하고, 교사·학생 대상 대응 매뉴얼 보급 및 사례 관리 등 내실화

- (맞춤형 지원) 자해·자살 시도 후 학교에 복귀한 학생의 안정적인 적응 및 낙인효과 방지를 위해 ▲ 복귀학생 대상 학업·긍정적 교우 관계 형성 등 맞춤형 지원, ▲ 또래 대상 공감·존중감 제고 교육 등 시행 교육청
- (대응 매뉴얼) 시도자 대응 매뉴얼을 생명존중희망재단에서 제작, 교사·학생 대상 교육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 복지부·교육부

현장의 목소리 ◇◇고등학교 E 교사 ('26.1월, 교육기관 의견수렴)

☞ "자살시도 학생이 발생할 경우, 담임이나 교과 선생님, 그리고 같은 반 친구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사례관리) 자해·자살은 재시도율이 높은 만큼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적기 상담·치료 서비스 지원 복지부·성평등부·교육청
  - 시도자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청소년 생명지킴 지역 안전망 협의회와의 통합 사례관리로 시도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
  - 협의회는 시도자의 부모나 보호자, 담임교사 등과 소통할 담당자를 지정, 시도자의 자살(자해) 재시도 충동을 억제 노력

⑪ **유족교우·교원에 대한 애도교육 등 지원**

❖ 유족·교우·교사 등 생존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자조 활동 및 애도교육, 소진 방지 프로그램 등 지원

- (유족 자조 지원) 유족지원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등 유족 지원을 강화하고, 자살 사망 청소년의 가족들이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은 슬픔을 공유하는 자조모임 지원 복지부

\* 유족 대상 특수청소, 심리상담, 법률지원 등 서비스 : ('25) 12개 시도 시행 → ('26.7) 전국 시행

- (교우 애도교육) 친구의 죽음을 경험한 청소년의 상실감과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학내외 애도교육 프로그램 지원 교육부·복지부·성평등부
- (교원 소진 방지) 학생 자살사안을 경험한 교원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일상 복귀 지원을 위한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부·복지부

## 5 **기반**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

### 12 학생 마음건강 분야 재정·지원 인력 확충

- ❖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 규모를 확대하고, 교육(지원)청 및 학교 현장의 관련 업무 수행 인력 확보 지원**
- (재정) 보통교부금 내 ‘학생마음건강지원비’ 반영을 단계적으로 확대(~30), 학생 자살 예방을 위한 시·도별 재정 기반 강화 교육부·교육청
- (반영액) 현재의 보통교부금 총액 0.25%(‘26년 기준 약 1,745억원) 수준에서 총액의 1% 수준을 목표로 확대 추진
- (지원범위) 기존 지원범위\*에 위클래스·위센터·위스쿨 신규 설치 및 환경개선, 병원·전문기관 연계, 가족상담 지원 등 소요경비 추가
- \*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비, ▲사회정서교육 실시 비용, ▲마음바우처 지원비, ▲기 설치된 위클래스·위센터·위스쿨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 (인력) 교육(지원)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전담 인력 및 학교 내 지원 인력 확충 등을 통한 교육현장의 대응 역량 제고 교육부·교육청
- (교육(지원)청)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시·도별 전담 인력 약 200명 확보(국가정책수요 등) 지원(~30)
- (학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8조)’ 지원(교육, 상담, 프로그램 등) 인력의 학교 내 배치 확대

### 13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주체별 책무성과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 ※ '26.3.6.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 (주체별 책무성 확보) 국가, 지자체, 가정, 학교 등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을 명시, 범국가적 책무성 강화 교육부

#### 《 학생마음건강 지원을 위한 주체별 역할(안) 》

	국가·지자체	학교	가정
주요 역할	관련 시책수립 및 행·재정적 지원	학교 내 교육환경 및 문화 조성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 및 국가 등의 지원 협조

- (지원 근거 법제화) 사회정서교육, 위기학생 발견, 학내외 상담 안전망 및 치료·연계 등 지원을 위한 법령상 근거 마련 교육부
- 지원 근거 법제화로 관련 예산 확보의 안정성 및 지속성 제고
- (전문기관 설립) 학생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지원, ▲관련 연구 수행,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인식개선 활동 등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학생마음건강진흥원’) 설립 추진 교육부

### 14 청소년 심리부검 및 사망자 통계 분석

❖ 청소년 심리부검 및 통계 분석, 디지털 정보 활용 등을 통해 근거 기반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 수립 지원

- (심리부검) 청소년 심리부검 사업(‘26년~)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고, 부모·가족·교사 등 주체별 심층면접 방안 강구 복지부·교육부·성평등부
- (디지털 정보 분석) 자살자가 남긴 디지털 정보 분석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살암시행동 특성을 파악, 예방대책에 활용 복지부·방미통위·과기정통부·법무부·개보위

- (통계 분석) 자살 사망자 데이터베이스를 포함한 사망자 통계등록부('16~'25)를 구축하여 청소년 자살 사망자 특성(학년, 가정환경 등)에 대한 심층분석 기반 마련 데이터처
- AI를 활용하여 데이터처 통계자료 및 경찰 사안보고서를 분석, '원인 미상' 사례를 축소하는 다차원적 연구·분석 추진 데이터처·복지부

## 15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

❖ 사회 전반의 생명존중 분위기 형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관계기관 활동 강화, 장소·수단 관리 등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청소년이 존재 자체로 의미있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문체부·교육부·성평등부·복지부

**현장의 목소리** 서울 구룡사 J 스님 (26.4월, 종교시설 현장 방문)

☞ "입시경쟁, 스마트폰에 갇혀 사는 청소년들에게 숨쉴 기회와 공간을 마련해주는 것이 천주교·기독교·불교 등 모든 성직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나서야 할 과제입니다. 구겨진 마음을 펴고 밝은 기운이 깃들게 자연 속에서 숨쉬는 법을 나누어야 합니다."

- 각계(문화계·종교계·학계 등)의 공동노력에 기반한 ▲진로·체험 기반 교육 강화, ▲실패해도 재기가능한 여건 조성, ▲약자를 배려하는 사회 안전망 구성 등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기본사회 문화 조성
- (관계기관 활동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경찰·소방은 물론, 생명의전화,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 등 민간과 함께, 자살률을 저하시키는 노력 강화 성평등부·교육부·복지부·행안부·문체부 등
- \* (예시) \* 삼성생명, 삼성전기, 현대차그룹, GS칼텍스, POSCO 등 청소년 자살예방활동 전개, \* 대전시, 청소년이 이용하는 입시보습학원에 마음상담카페 운영
- (장소·수단 관리) 교량 난간 개량, 고층건물 출입차단장치 설치 지원 등 자살장소 관리 국토부, 반개탄·마약성분 약물 등 수단 관리 강화 검토 복지부·식약처
- (AI 전환 체제 대응) 심리 상담을 AI에 의존하는 청소년 증가 추세를 고려, AI 과의존에 대한 유의사항(가이드라인) 안내 복지부·과기정통부
- ※ 청소년이 ChatGPT와 정신건강 및 자살 관련 대화를 지속한 후 사망하여, AI 활용 관련 청소년 보호 및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사례가 보고(BBC, '25.11)

## V. 향후 추진 계획

- 본 대책 확정과 함께 즉시 추진가능한 과제는 '26.6월부터 각 부처별로 시행
  - 예산 소요 시, 기정예산 활용 등을 통해 우선 추진
  - 기정 예산 활용 곤란 시, 내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 노력
- 법령 등 개정 필요사항을 점검하여,
  - 시행령·부령, 고시·지침 개정사항은 즉시 개정절차를 추진
  -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개정 추진
- 분야별 추진 대책 발표 및 제6차 기본계획 확정(~'26.9월)
  - 「자살예방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동법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 정책위원회(국무총리 소속)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 확정
-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시행('26.10월~)
  - 「자살예방법」 제8조에 근거,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

**참고**

**추진 과제별 소관부처**

추진 과제	소관부처	비고
<b>1. 마음건강 교육 확대 및 자살 유발요인 완화</b>		
<b>① 공교육 기반 청소년 마음근육 강화 지원</b>		
○ 자살예방교육	복지부 교육부	
○ 사회정서교육	교육부	
○ 체육·예술교육	교육부	
<b>② 가정·학교의 청소년 마음건강 지원 역량 제고</b>		
○ 부모교육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부 행안부	
○ 교원연수 등	교육부	
<b>③ 청소년 성장환경을 둘러싼 자살 유발요인 완화 지원</b>		
○ 진로 고민·학업 스트레스	교육부 성평등부 문체부 교육청	
○ 고립·관계 문제	교육부 성평등부 교육청	
○ 디지털·온라인 등 매체	성평등부 과기정통부 교육부 복지부 방미통위 식약처 문체부	
<b>2. 고위기 청소년 적기 발견</b>		
<b>④ 기존 선별방식 고도화·체계화</b>		
○ 선별검사 내실화	교육부	
○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부 성평등부 복지부	
○ 학교밖청소년 중 고위기자 선별	성평등부	
<b>⑤ 위기 청소년 선별기제 다각화</b>		
○ 자살시도자 정보 공유	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소방청	
○ AI 기반 위기징후 발굴 시스템 구축	성평등부 과기정통부	
○ 선별방식 개선	교육부 복지부	
<b>3. 고위기자 청소년 대상 상담·치료 지원 확대</b>		
<b>⑥ 학내외 상담 여건 개선</b>		
○ 위클래스 개선	교육청	
○ 위센터 기능 확대	교육청	
○ 상담인력 확충	교육부 행안부 교육청 성평등부	
○ 상담역량 제고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성평등부	
○ 전화·인터넷상담 강화	성평등부	
<b>⑦ 치료·연계 등 지원을 위한 지역 내 인프라 확충</b>		
○ 긴급 지원	교육부 교육청 복지부	
○ 마음바우처	교육청	
○ 복합지원기관	교육부 교육청	
○ 전용 병동·병상	복지부	

추진 과제	소관부처	비고
<b>⑧ 외상·정신병력 없는 고위기 청소년 일시보호 시설 확보</b>		
○ 일시보호 시설 신설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 임시보호 공간 확보	성평등부 교육부 복지부	
<b>⑨ 지역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b>		
○ 지역 안전망	행안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지자체 교육청	
○ 소년원 관리 연계	법무부 복지부 성평등부 문체부	
<b>4. 시도자·유족 등의 건강한 회복 지원</b>		
<b>⑩ 자해·자살 시도 청소년의 일상생활 복귀 조력 시도자 일상생활로의 복귀</b>		
○ 맞춤형 지원	교육청	
○ 대응 매뉴얼 제작·보급	복지부 교육부	
○ 사례관리	복지부 성평등부 교육청	
<b>⑪ 유족·교우·교원에 대한 애도교육 등 지원</b>		
○ 유족 자조 지원	복지부	
○ 교우 애도교육	교육부 복지부 성평등부	
○ 교원 소진 방지	교육부 복지부	
<b>5. 자살 예방을 위한 정책적·환경적 기반 강화</b>		
<b>⑫ 학생 마음건강 분야 재정·인력 확충</b>		
○ 재정 기반 강화	교육부 교육청	
○ 인력 확충	교육부 교육청	
<b>⑬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 추진</b>		
○ 주체별 책무성 확보	교육부	
○ 지원 근거 법제화	교육부	
○ 전문기관 설립	교육부	
<b>⑭ 청소년 심리부검 및 사망자 통계 분석</b>		
○ 심리부검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부	
○ 디지털 정보 분석	복지부 방미통위 과기정통부 법무부 개보위	
○ 통계 분석	데이터처 복지부	
<b>⑮ 자살예방 및 마음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b>		
○ 생명존중 분위기 조성	문체부 교육부 성평등부 복지부	
○ 관계기관 활동 강화	성평등부 교육부 복지부 행안부 문체부 등	
○ 장소·수단 관리	국토부 복지부 식약처	
○ AI 전환 체제 대응	복지부 과기정통부	